



고전 필수 어휘는 몇 개 되지 않는다.

고어	현대어	예문
괴다	사랑하다	<u>괴시란</u> 디 우러곰 좇니노이다 - <서경별곡>
어리다	어리석다	이 마음 <u>어리기도</u> 님 위한 탓이로세 - 윤선도, <견회요>
어엿브다	불쌍하다	꺾도리 더 꺾도리 <u>어엿브다</u> 더 꺾도리 - 작자미상
믹다	미워하다	믹리도 괴리도 업시 마자셔 우니노라 - <청산별곡>
슬허하다	슬퍼하다	곳이 진다하고 새들아 <u>슬허</u> 마라 - 송순
헌사하다	야단스럽다	어와 조화옹이 <u>헌사토 헌사홀샤</u> - 정철, <관동별곡>
동다	좋다	불휘 기픈 남근 브르매 아니 뭇씨 곳 <u>도코</u> 여름 하느니 - 용비어천가 (2장)
좋다	깨끗하다	明沙(명사) <u>조흔</u> 물에 잔 시어 부어 들고 - 상춘곡
선하다	서운하다	두어리마느논 <u>선호면</u> 아니올세라 - 고려가요, <가시리>
늦기다	흐느끼다	하 어척 업서셔 <u>늦기다가</u> 그리 되게 - 신희의 시조
녀다 (니다, 네다)	가다, 지내다, 살아가다	니물 훈디 <u>녀가져</u> 원을 비습노이다. - 고려가요, <동동>
벼기다	우기다, 모함하다	<u>벼기더시니</u> 뉘러시니잇가 - 정서, <정과정>
이슷하다	비슷하다	산 접동새 난 <u>이슷호요이다</u> - 정서, <정과정>



명사형은 ○  
'헤음, 헤움, 험'으로  
생각, 근심의 뜻으로  
사용됨.

고어	현대어	예문
혀다	(악기, 불)을 켜다/연주하 다, 당기다	이월 보로매 아으 노피 <u>현</u> 등스불 다호라 - 고려가요, <동동>
식어디다	사라지다, 죽다	출하리 <u>식어디여</u> 범나비 되오리라 - 정철, <사미인곡>
삼기다	생기다, 태어나다	이 몸 <u>삼기실</u> 제 님을 조차 삼기시 - 정철, <사미인곡>
몰다	마름질하다, 재단하다	칼로 <u>몰아</u> 낸가, 붓으로 그려낸가 - 정극인, <상춘곡>
여히다	이별하다, 헤어지다	<u>여히여슈물</u> 슬후니 새 막속을 놀래느다 - 두보, <춘망>
외다	그르다, 잘못되다	슬프거나 즐거우나 옳다 하나 <u>외다</u> 하나 - 윤선도, <견회요>
잘다 /더르다	짧다	긴 소리 <u>자른</u> 소리 절절이 슬픈 소리 - 사설시조
긋다/넋다	끊어지다 /이어지다	노픈 듯 녹은 듯 <u>그쏸</u> 듯 <u>넋노</u> 듯 - 송순, <면앙정가>
디다	떨어지다	구슬이 바회에 디신들 - 작자미상, <서경별곡>
헤다	생각하다 (생각, 근심)	도로혀 풀쳐 <u>헤니</u> 이리 흥여 어리 흥리. - 허난설헌, <규원가>
가시다 (가식다)	변하다. 없어지다	님 향한 일편 단심이야 <u>가실</u> 줄이 있으랴 - 정몽주, <단심가>





고어	현대어	예문
~다호라	~같구나	유월 보로매 아으 별헤 브론 빗 <u>다호라</u> - 고려가요, <동동>
~고져	~하고자(소망)	출하리 한강의 목목에 다히 <u>고져</u> - 정철, <관동별곡>
~ㄱ니와	물론이거니와	각시님 돌이야 <u>ㄱ니와</u> 구즌 비나 되쇼셔 - 정철, <속미인곡>
~제	~때	이 몸 삼기실 <u>제</u> 님을 조차 삼기시니 - 정철, <사미인곡>
~디	~곳(장소)	즌 <u>디</u> 를 드디올세라 - 정읍사
~다히	~쪽	무등산 훈 활기 뫼희 동 <u>다히</u> 로 버더 이셔 - 송순, <면앙정가>
~우희	~위에 /~전에	중문 나서 대문 나가 지방 <u>우희</u> 치드라 안자 - 사설시조 천세 <u>우희</u> 미리 정흐산 한수 북에 - 용비어천가 (125장)
~도곤/~라와 /~에	~보다(비교)	널 <u>라와</u> 시름 한 나도 자고 니러 우니노라 - 청산별곡 누고셔 삼공 <u>도곤</u> 낫다 흐더니 만승이 이만흐랴 - 윤선도, <만흥>
~손디	~에게(에게서)	뉘 <u>손디</u> 타 나관디 양지조차 ㄱ툃손다 - 정철, <훈민가>
~르세라	~할까 염려되다	잡스와 두어리마누논 선희면 아니 <u>올세라</u> - <가시리>

고어	현대어	예문
백구	갈매기	白鷗(백구)야 낙디 마라, 네 버딘 줄 었디 아논 <관동별곡>
이화	배꽃	이화(李花)우 훗썩릴 제 울며 잡고 이별흔 님 - 계랑의 시조
도화	복숭아꽃	백구야 헌사하랴 못 미들손 도화(桃花)로다. - 송순의 시조
행화	살구꽃	도화(行花)는 석양리에 피여잇고 - 정극인, <상춘곡>
두견화	진달래꽃	松間(송간) 細路(세로)에 杜鵑花(두견화)를 부치 들고 - 정극인, <상춘곡>
척촉	칠쭉	斜沙陽(척촉) 峴山(현산)의 躑躅(척촉)을 므니불와 - 정철, <관동별곡>
시비	사립문	시비(詩比)를 여지 마라, 날 츠즈리 님 이시리 - 신희의 시조
綠楊(녹양)	버드나무	綠楊(녹양)의 우논 黃鶯(황앵) 嬌態(교태) 겨워 흐논고
황앵(黃鶯)	피꼬리	야. <유산가>
세우(細雨)	가랑비	綠楊芳草(녹양 방초)는 細雨中(세우 중)에 폰르도다. - 정극인, <상춘곡>
금수(錦繡)	수 놓은 비단	즌 서리 싸딘 후의 산 빗치 錦繡(금수)로다. - 송순, <면앙정가>
황운(黃雲)	누렇게 익은 곡식	黃雲(황운)은 쏜 엇지 萬頃(만경)의 편거괴오. - 송순, <면앙정가>
조화옹(造化翁)	조물주	어와, 造化翁(조화옹)이 헌스토 헌스홀차. <상춘곡>
삼공(三公)	삼정승	누고셔 삼공(三公)도곤 낫다하더니 만승(萬乘)이 이만
만승(萬乘)	천자	하랴/이제로 헤어든 소부허유 약뎃더라 - 윤선도, <만흥>
소부 허유	은사 (隱士)	
백이숙제	절개의 대명사	수양산(首陽山) 바라보며 이제(夷齊)를 한(恨)호노라. <성삼문 시조>



○ ‘누런 구름’이지만

주로 익은 곡식을 표현

‘선상탄’에서는

‘전쟁의 기운’으로 나옴

주로 속세의 부귀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



속세의 소박한 삶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주로 사용

고어	현대어	예문
노화(蘆花)	갈대	蘆花(노화) 곱든 곳에 明月淸風(명월청풍) 벗이 되야 -박인로, <누항사>
모옥(茅屋)	띠집	數間茅屋(수간 모옥)을 碧溪水(벽계수) 얹피 두고 --정극인, <상춘곡> =모침(茅簷)=초려삼간
희황	태평성대	羲皇(희황) 모를러니 이 적이야 괴로고야 -송순, <면앙정가> =요순(堯舜), 복희씨 : 성군=태평성대
죽장망혜(竹杖芒鞋)	대지팡이와 짚신	죽장망혜(竹杖芒鞋) 단표자(單瓢子)로 천리 강산을 들어를 가니 -유산가
도롱이 =녹사의	우비	삿갓에 도롱이 입고 세우중에 호미 메고 -김광필 시조 靑簔笠(청약립)은 써 잇노라 綠簔衣(녹사의) 가져오나 -윤선도, <어부사시사>
벽계(碧溪)	푸른 시내물	영농벽계(玲瓏 碧溪)와 수성데도는 이별을 원하느 듯 -정철, <관동별곡>
공후	공 후 (악기)	공후는 하소연하는 듯 울음을 우는 듯 -장상사
누리	세상	누릿 가온디 나곤 몸하 흥올로 녀쳐 -동동
나리	넷물	正月(정월)스 나릿 므른 아으 어저 녹저 흥논디 -동동
측량	헤아림	번복도 측량없다 승침도 하도할사
함포고복	실컷먹고 배를 두드림	남방염천 찌는 날에 빨지 못한 누비바지 함포고복하여 격앙가를 부르나니 -안조연, <만연사>
유수(流水)	흘러가는 물	流水(유수)는 엇데하야 晝夜(주야)애 굶디 아니논고 -이황, <도산십이곡>
주렴(珠簾)	문에 치는 발:	주렴 밖 새 등지 제비 한 쌍 드는데 -김병연, <상배자만>
어주(魚舟)	고기잡이 배	어주에 누어신들 잇은 적이 이시랴 -<이현보, 어부가>
어옹(漁翁)	고기잡는 늙은이	어옹을 웃지마라 그림마다 그렸더라 -윤선도, <어부사시사>
하암	촌뜨기	어리고 하암의 뜻의는 내 분인가 흥노라 -윤선도, <만흥>
분(分)	분수	

고어	현대어	예문
옥황	옥황상제	
백옥루	옥황상제의 궁전 =광한전	백옥루(白玉樓) 중수(重修)할 때 어떤 바치 이뤄 낸고./옥황께 사죄 보자 하더니 다 못하여 왔도 다. - <윤선도, 추야장>
녹의홍상	연두저고리와 다홍치마. (고운모습)	綠衣紅裳(녹의 홍상) 一女子(일여자)가 飄然(표연) 이 앞히 와서 - <봉선화가>
촉(燭)	촛불	촉잡고 갓가이 사랑할 제 암향 좇춇 부동터라 - <안민영의 시조>
침선	바느질	침선 돕는 유를 각각 명호를 정하여 벗을 삼을 새 <규중칠우쟁론기>
하다	많다	노래삼긴 스람 시름도 하도할샤 <신희의 시조> (비교)ㅎ다 =하다(爲)
박주산채 (薄酒山菜)	변변치 못한 술과 산나물	아히야, 박주산채 ㄹ망정 업다 말고 내여라 <한호의 시조>
금서(琴書)	거문고와 책	아히야 금서를 다스려라 나쁜 히를 보내리라 <정철의 시조>
양자(樣子)	얼굴모습	어린 양자 고은 소리 눈에 암암 귀에 쟁쟁 산은 첩첩 고개되고 물은 충충 소이로다 <상사별곡>
소(沼)	연못, 늪	
동짓달	음력 11월	동짓달은 일양이 생이라 소춘이 된 줄 모르시노 선달이라 제석날 밤은 무장 공자라도 참기 어려우니 <관등가>
선달	음력 12월	



유배문학 등에서

임금과 자신을

옥황과 하계에 내려

오게 된 신선(선녀)로

설정하는 경우 많음.

이때 옥황은 임금,

백옥루, 광한전은

궁궐 상징

고어	현대어	예문
실솔	귀뚜라미	님 글인 상사몽이 <b>실솔</b> 이 녀석되야 <박효관의 시조>
사창/ 옥창/ 규방	여인의 방(창)	제 혼자 우리 네어 <b>사창</b> 여원 즘을 솔뜨리도깨우논 고야 <사설시조>
원앙금침 (鴛鴦衾枕)	원앙무늬 이불, 베 개	휘장에 달 비치나 <b>원앙 금침</b> 이 싸늘하다 -허난설헌, <사시사>
홍안(紅顏)	젊은 사람, 특히 여자	薄命(박명)한 <b>紅顏(홍안)</b> 이야 날 갓하니 또 이실가. -허난설헌, <규원가>
화용월태 (花容月態)	여인의 고운 모습	<b>월태화용(月態花容)</b> 고운 태도 완보(緩步)로 건너갈 제 <춘향가>
노류장화 (路柳牆花)	기생	<b>노류장화</b> 꺾어쥐고 춘색으로 다니는가 <상사별곡>
군자호구	군자의 좋은 배필	公侯配匹(공후 배필) 못 바라도 <b>君子好逑(군자호구)</b> 願(원)하더니 <규원가>
월하 (월하노인)	중매인	三生(삼생)의 怨業(원업)이오 <b>月下(월하)</b> 의 緣分(연분)으로 <규원가>
녹기금	거문고	靑燈(청등)을 들나노코 <b>綠綺琴(녹기금)</b> 빛기 안아 <규원가>
섬섬옥수 (옥수)	여 인 의 고운 손	<b>玉手(옥수)</b> 의 타난 手段(수단) 넋 소래 잇다마난 <규원가>
독수공방 /무인동방	빈 방 의 외로움	<b>無人洞房(무인동방)</b> 에 내 뜻 알리논 저뿐인가 흐노라. <사설시조>
상사몽	님 그린 꿈	<b>상사몽</b> 놀라 깨여 맥맥히 생각하니 -이세보, <상사별곡>
애틀다	몹시 슬픔	(비교)애틀다 : 몹시 답답하거나 안 타까워 속이 끓는 듯하다. 느애틀다.



자연	산(山), 물(江, 川, 湖 水, 溪), 나무(林, 樹, 松, 竹), 바람(風), 달(月) 등의 조합 ⇒ 산림, 강호, 강천, 풍월, 강산, 연하, 송간, 죽림, 임천, 청풍명월, 산수, 산천...
자연 속의 한가로움	유유자적(悠悠自適), 강호한정(江湖閒靜), 물외한인(物外閒人), 음풍농월(吟風弄月), 미음완보(微吟緩步), 임천한흥(林泉閒興), 어부(漁夫)생애, 한중진미(閑中眞味)
소박한 삶의 만족감	안빈낙도(安貧樂道), 안분지족(安分知足)
소박(가난)한 삶	단사표음(簞食瓢飮), 단표누항(簞瓢陋巷)
자연친화	자연동화(自然同化), 물아일체(物我一體), 물심일여(物心一如), 풍월주인(風月主人)
자연을 사랑하는 병	천석고황(泉石膏肓), 연하고질(煙霞痼疾)
아름다운 경치(이상향)	무릉도원(무릉), 별천지, 승경, 선경, 연명오류...
자연과 대비되는 속세	홍진, 풍진, 인간세상(인세, 인간)
세월	염냥(추위와 더위), 년광, 광음, 춘추(봄, 가을)
온 세상	건곤, 팔황, 육합
사군자	매화 - 아치고절(雅致孤節), 빙자옥질(氷姿玉質) 난초 - 외유내강(外柔內剛) 국화 - 오상고절(傲霜孤節) 대나무 - 세한고절(歲寒孤節)
시간	초경 : 저녁 7시- 9시 (일경, 초야, 갑야) 이경 : 저녁 9시- 11시 (을야) 삼경 : 저녁 11-새벽 1시 (삼야, 병야) 사경 : 새벽 1시-3시 (정야) 오경 : 새벽 3시-5시 (오야, 무야)